

중국-라오스 고속 철도 개통, 한국발 신선 식품의 1일 배송 가능해질까?

2021년 12월 15일

□ 키워드

‘21.12.2. 라오스 건국 기념일을 맞아 중국 쿤밍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고속철도 개통식이 진행되었음. ‘16.12월 착공되어 무려 60억불이 투자된 이번 프로젝트는 라오스 정부의 물류 중심국 전환정책이 맞물려 양국 간 상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○ 중국-라오스 고속 철도 노선 및 운임

-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의 루왕프라방, 비엔티안, 수도 비엔티안 등 5개 주를 연결하는 1,035km(라오스는 422.4km)의 고속철도 구간은 탑승객을 위한 10개의 승강장과 물류 수송을 위한 22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며, 속도는 160km/h로 중국 쿤밍에서 비엔티안 특별시까지 10시간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밝혀짐
- 이 노선의 북쪽 끝은 쿤밍-우시-푸어-모한의 4개 중국 노선으로 이뤄져 있고, 비엔티안을 잇는 6개의 노선은 미래에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대를 통해 방콕으로 연결된 예정임(‘28년 완공 예정)
-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국경을 봉쇄한 현재, 당분간은 국내선만 운행될 예정임
- 운임을 살펴보면, 비엔티안 특별시 출발 루왕프라방 도착은 일반석 기준 140,000kip(16천원), 특별석은 313,000kip(36천원) 수준으로, 동일 경로의 항공권 가격(66천원)과 비교 시 저렴한 운임임

○ 한국 신선 식품의 라오스 북부 지방 진출 기대

- 높은 산지와 열악한 도로 사정 등으로 육로로 가기 어려웠던 북부 지방을 고속 열차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면서 한국산 신선 식품의 북부 지방 진출이 기대됨
- 항공을 통해 받은 냉장 신선 식품을 45분 내로 고속철도 역으로 배송, 루왕프라방역으로 1시간 48분 내로 배송이 가능해짐
- 현재의 제한적인 열차 스케줄이 더 확장되고, 빠른 통관이 가능해진다면 항공 물류로 운송 후 북부 관광도시 루왕프라방까지 배송이 3시간 내로 가능하게 됨
- 특히, 종착역인 루왕남타주의 보텐시는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검문소가 위치한 지역을 양국 간 국경을 넘나드는 물류가 활발하며, 국경 지역 거주민의 라오스 철도를 통한 한국산 신선 농식품 소비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

○ 시사점

- 중국-라오스를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다양한 한국 신선 농식품의 라오스 대도시 외 2선 도시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고속철도를 통한 여행객 유입에 따른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고속철도를 통해 중국산 농식품의 라오스 유입이 예상되는 바, 우리 기업은 원산지 및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

○ 출처

-<https://news.cgtn.com/news/2021-12-02/China-Laos-railway-to-begin-operations-on-Friday-15FxK7kpgOc/index.html>

-<https://abcnews.go.com/Business/wireStory/laos-opens-railway-china-debt-beijing-rises-81536351>

-<https://www.facebook.com/LaosChinaRailway/photos/pcb.4592090490875362/4592087170875694>